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5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외국인 스님도 "사찰음식 'NO.1'"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12월1일 국내에 거주 외국인 스님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포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출입국 행정 안내'와 '사찰음식 체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외국인 스님들은 연근밥, 모듬버섯 조림 등을 직접 만들며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글= 임은호 기자, 사진= 노덕현 기자**

"캐럴로 공공선교하냐" 불교 폭발했다

불교계, 잇단 종교편향에 누적 공분 격화

문체부 '캐럴 캠페인' 계기로
공공기관 편향 강경대응 확산
조계종 · 불교단체 잇딴 성명
종단협, 청와대에 항의 서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독교 음악인 '캐럴'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캠페인이 종교편향 논란을 넘어 범불교적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의 규탄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문체부를 상대로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도 앞다퉈 성명서를 발표하고 캠페인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29일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등 종교계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과 일반 음식점,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캐럴 재생을 활성화해 연말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에 광고를 송출하고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캐럴 이용권 3만장을 제공키로 했다.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캐럴 무료음원 22곡도 제공된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캠페인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적지 않다. 문체부가 특정종교음악에 대한 공식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누리집을 통해 무료음원으로 제공되는 22곡 역시 대부분 익히 알려진 캐럴이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천사들의 노래가' 등 특정종교색을 강하게 띈 곡들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계종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종교편향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캐럴 활성화 캠페인'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사태는 점차 극단으로 치달았다. 종단협은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심각한 종교편향으로 규정하고 회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회의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삼혜 스님과 특보단장 혜일 스님(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 사무처장 진경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대각종 소임자가 대표참석했다. 종단협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한 범종단 차원의 강경대응을 결의하고 즉시 항의서한을 채택했다. 이어 연계일정으로 오후 5시 30분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비서실 김영문 사회통합비서관에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종단협은 항의서한에서 "문체부에 캠페인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불교계의 우려와 항의의 뜻을 담아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을 비롯해 2000만 불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종단협은 12월 1일 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성명서를 통해 "최근 종교편향 정책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나서 선교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노골적인 종교편향 행위와 다름없다"며 "특히 공중파에 이를 강제하고, 예산을 들여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이자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불교계 각 기관 · 단체들의 규탄 목소리도 잇따랐다.

포교사단은 11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정부기관에서 특정종교 찬송가를 대중화하고 전국에 송출한다는 발상이 문제"라며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부처에서 종교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12월 1일 입장문을 내고 캠페인 중단과 정부 사과를 요구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설 3면〉

"탑 부숴 남연군묘 이장"

〈흥선대원군 아버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

예산군, 12월 2일 가야사지 발굴 결과 발표

옥개석 등 고려~조선 유구 확인
'매천야록' 기록 사실로 밝혀져
"향후 역사문화공원 조성할 것"

예산 가야산 가야사지는 조선시대까지 번성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고려 나옹화상이 조성한 '금탑(金塔, 석탑이나 상륜부가 반짝거려 붙은 별명)'과 통일신라 철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이 사찰이 폐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천 황현(1855~1910)이 쓴 〈매천야록〉에서 확인된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은 안동김씨에게서 정권을 되찾아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전국 명당을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찾은 곳이 예산 가야사였다. 흥선대원군은 마곡사 스님들을 불러 가야사에 불을 지를 것을 종용했다. 당연히 스님들은 "불제자로서 불을 지를 수 없다"고 버텼으나, 흥선대원군의 강한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불을 질렀다. 하루아침에 폐사된 가야사는 야사(野史)로만 기록돼 전해졌다.

〈매천야록〉 등에 수록된 예산 가야사 폐사와 금탑 파괴에 대한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12월 2일 충남도 기념물 제150호 예산 가야사지 제8차 발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차 발굴조사를 진행한 동방문화재연구원(원장 이호형)은 〈매천야록〉에 기록된 가야사 폐사와 금탑 파괴 내용을 토대로, 남연군 묘 주변까지 조사 지역을 확장해 8차 조사를 진행했다.

발굴조사 결과 남연군 묘 이장과정에서 사찰이 파괴됐던 흔적들이 확인됐다. 예산군과 동방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발굴을 통해 고려시대 전기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에 건립된 건물지, 담장지, 축대 등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남연군 묘역 내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전기에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축대와 가구식(架構式) 기단(基壇) 건물지 1동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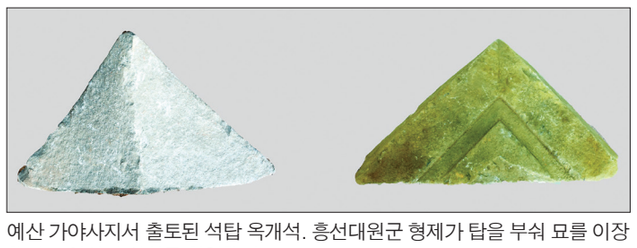
건물지는 기단석 반과 서쪽 계단이 일부 남아 있는데, 조선시대 온돌 건물지에 의해 먼저 훼손되고, 1846년 남연군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역 외곽 축대의 북동쪽 경사면에는 석탑 및 건물에 있던 불상 및 석탑 조각과 잘 다듬은 판석(板石) 등 많은 석재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출토됐다. 이는 남연군 묘 이장 과정에서 가야사 석탑과 건물 석재들을 집중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은 "전형적인 신라시대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해 고려 · 조선시대 유물들이 함께 출토됐다"며 "가야사(伽倻寺, 加良岬寺)는 신라 때 창건돼 남연군 묘가 조성되기 이전까지 불사가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가야사지와 남연군 묘의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가야사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역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가야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를 알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예산 가야사지서 출토된 석탑 옥개석. 흥선대원군 형제가 탑을 부숴 묘를 이장했다는 야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 · 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